

전 남

광양 '전우치' 설화 띄운다

태인동 궁터복원 등 자료수집 나서 영화 흥행 맞춰 역사 관광지화 모색

광양시가 최근 영화 '전우치'의 흥행 성공에 맞춰 전우치 관련 설화개발 및 궁터복원을 모색하고 있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흥길동과 함께 조선시대 고전 영웅소설 주인공인 전우치(조선 중종)와 관련된 각종 설화가 광양시 태인동 궁기마을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에 앞서 광양시가 발간한 시지(市誌)에도 지난 1983년 순천대와 광양시가 태인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했던 왕궁터 설화가 나와있

다. 시지에는 전우치가 태인도에 궁터를 짓고 성을 쌓아 말을 조련했던 성터자리가 남아있는데 현재 궁기마을이 '전우치 궁터'라고 기록돼 있다. 또한 목담전 곁에 '전우치 말채찍 나무'가 현재 살아있으며, 옥곡면 광영리 바닷가에 있던 '쟁암'이란 바위에 '전우치 백마 앞발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광양제철이 들어서면서 도로공사때 없어졌다고 전해진다.

작자 미상의 '전우치전'은 도술을 부려 구름을 타고 사방을 다니면서 횡포와 약탈을 일삼는 권리를 단죄하는 전우치라는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조선 후기 고전소설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오는 설화는 '전우치가 도술을 부려 궁기마을에 왕궁을 짓고 섬진강을 한강으로 바꿔 왕명을 빌어 남원, 곡성, 구례, 하동 등지에 조곡을 바칠 것을 명하니 순식간에 수천 석이 모여져 이 곡식을 탐관오리들에게 시달리는 충정도 백성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이 밖에도 황금 대들보, 섬진강 전설, 박문수 여사의 광양예찬 설화 등 전우치와 관련한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임영호 시 문화홍보담당관은 "태인동을 중심으로 전우치 설화가 꾸준히 전해 내려오고 있어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해 영화 흥행에 맞춰 역사 문화관광지로 발굴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태인동은 원래 태인도라는 섬이었지만 인근에 광양제철소가 건설되면서 다리가 놓여 육지가 됐다. 1800년대 태인도 용지마을 김해 김씨의 가세가 늘면서 분가해 본격적으로 궁기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역사문헌 '호남도서도' 등에 기록돼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신안서 국내 최대 가마우지 번식지 발견

우이도 형제섬에 50여쌍 서식

국내 최대 가마우지 번식지가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남동쪽 한 무인도에서 첫 확인됐다. '형제섬'이라는 불리는 이 무인도에 가마우지 50여쌍이 무더기로 번식하는 사실이 주민들에 의해 최근 확인됐다. '형제섬'은 장소가 협소해 부화기 끝나면 주변 섬에서 다른 가마우지 날아와 번식하고 있으며, 새끼혼련과 먹이활동으로 1년 내내 가마우지 날갯짓을 관찰할 수 있다.



서 번식하는 것은 송어와 장어 등 먹잇감이 풍부해 대다 사람의 간섭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부취재본부=조남익기자 wncho@

김석이 목포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국내에서는 여수 거문도, 백령도 서남해의 작은 무인도 바위 절벽에서 서식하는 텃새"라며 "가마우지가 우이도에

순천·광양·강진·무안·해남 인구 늘었다

신도시·산단 등 한몫...전남도 인구는 6천여명 줄어

전남지역 인구 감소폭이 지난해 크게 둔화된 가운데 도내 순천, 광양, 강진, 무안, 해남 등 5개 시·군지역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 단위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이 없었던 해남, 강진지역 인구가 증가세를 보인 것은 40여 년 만에 처음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인구는 총 191만 3천4명으로 전년 말에 비해 5천996명 줄어든다. 도내 인구 감소폭은 2002년에 4만5천명으로 달하기도 했으나 2005년 1만8천명으로 낮아졌고 2006년 2만4천명으로 다소 늘었다가 2007년 1만3천명, 2008년 1만명으로 꾸준히 좁혀졌으며 지난해 5천996명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인구 감소폭이 줄면서 도내 일부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8년 말과 비교해 지난해 인구가 늘어난 곳은 순천, 광양시와 해남, 강진, 무안군 등 5곳이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무안군으로 도청이전으로 남양신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5천819명이 증가했으며 산단 등 인력수요가 많은 광양시도 2천73명이 늘었고 순천시도 87명

천명으로 낮아졌고 2006년 2만4천명으로 다소 늘었다가 2007년 1만3천명, 2008년 1만명으로 꾸준히 좁혀졌으며 지난해 5천996명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인구 감소폭이 줄면서 도내 일부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8년 말과 비교해 지난해 인구가 늘어난 곳은 순천, 광양시와 해남, 강진, 무안군 등 5곳이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무안군으로 도청이전으로 남양신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5천819명이 증가했으며 산단 등 인력수요가 많은 광양시도 2천73명이 늘었고 순천시도 87명

이 증가했다. 특히 해남군과 강진군도 각각 105명, 11명이 늘어났는데 이들 지역은 다른 곳과는 달리 별다른 인구 증가요인이 없는데도 40여 년 만에 소폭이나마 인구가 늘어나 주목받고 있다. 해남, 강진군은 ▲교육인프라 구축 ▲공격적인 투자유치 ▲주민소득 배가 운동 ▲출산장려정책 ▲귀농정책 등 다양한 시책이 인구증가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적극적 기업유치로 새로운 일자리가 꾸준히 창출돼 젊은 인력들의 외부 유출이 감소했고 타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도내 인구가 200만 명 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

드림카 퍼포먼스 등 여수박람회 D-800일 시민참여 행사 다채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D-800일을 맞아 여수시 12개 권역에서 다채로운 시민 참여 행사가 5일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사)내거먼저 First여수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중익)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여수시 전역에 걸친 박람회 준비로 연계해 박람회장화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131개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공무원 등 3천300여 명이 참여, 여수시 전역에서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사)내거먼저 First여수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중익)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여수시 전역에 걸친 박람회 준비로 연계해 박람회장화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131개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공무원 등 3천300여 명이 참여, 여수시 전역에서 열린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관내지역 70개소 1천8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버 친환경농업단지 마을단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고품질 유기농 쌀생산을 위해 마련됐다. /동부취재본부=이진희기자 ik5826@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1권역 시청에서 기자회견 및 D-800일 드림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꽃길 조성, 하천 정비, 도심 벽화 그리기, 명품전통시장 만들기, 해양정화활동, 교통질서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가 박람회장에 열리는 12 권역 전체에서 펼쳐진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행정기관 주도형 박람회 이벤트 행사 및 대규모 군집행사를 지양하고 시민 직접 참여형 행사로 추진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ykpark@

도내 첫 개발 신제품종 김 '전남 슈퍼김 1호' 명명

전남도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신제품 김이 '전남 슈퍼김 1호'로 명명됐다. 전남도는 지난 3일 해남군 문예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박준영 도지사, 국회의원, 도·군·의원, 유관기관 및 김양식 어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신제품 명명식'을 개최했다. 또 행사장 로비에서는 최초 종

자를 받아낸 어미엽체와 양식 시험한 김의 1세대 엽체 표본이 전시됐다. 수산기술사업소 해남지소에서 육성한 신제품(방사무늬계통 대형종) 슈퍼김은 시험양식 결과 갯벌병해발생이 거의 없는 등 내병성이 높고 일반 김과 같이 양식했을 때 성장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김에 비해 엽장이 12.5cm 길고, 엽폭도 5.43cm 넓었으며 엽체색이 짙은 흑흑색을 띠고 있어 양식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슈퍼김은 현재 특허 출원중이며 2~3년의 양식시험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어업인들에게 분양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인재 구레” 교육에 최선

정 만 응 구레교육청 교육장



“구레교육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한결같은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일 취임한 정만응(59) 구레교육청 교육장은 “교직원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아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적성을 개발해 자신감을 심어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교육활동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출신인 정 교육장은 전

남대 공대 공업교육과와 전남대 교육대학원(교육행정학 석사)을 졸업했으며 지난 1978년 교직에 첫발을 내딛던 후 여수 구봉중 교장, 함평교육청 교육과장 장학관, 전남도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 산업담당장학관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향숙(55)씨와 사이에 1남2녀가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희기자 ik5826@

기생충 무료 검진 보성군 10일까지

보성군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보성강과 주안호 수계 주민을 대상으로 간·폐디스토마 기생충 검진사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기생충질환 가운데 가장 흔한 간·폐디스토마 감염은 전체 장내 기생충 환자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지난 2006년 142명(14%), 2007년 115명(10%), 2008년 147명(12%), 2009년 136명(11.4%)의 감염자를 투약·치료했다. 앞으로 퇴치수준인 1% 이하 감염률 도달 때까지 지속적으로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061-850-5562) /동부취재본부=선성기기자 sun@

효상공인중개사
T.062-376-4056
H.010-3128-1515
* 임야(농장·묘지·적합) 나주·봉황 3,730평 (㎡당10,600원) 매가 1억3천만원 (분할매각가능)
빌딩(임대용·투자용) -토지 244평 건평 393평 (병원·사무실적합) -매가 19억 -보증금 1억6천만 원30만원 보유하고 계산 부동산 산출 재산리모델링 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급매물 즉시 중개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TEL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십시오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할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입니다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부지구함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용 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확인 된 곳.
광주·전남권 중형마트 구함
■ 위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 매장면적 : 150-350평
■ 임대 및 매수가능.
■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가능
(주) 땅심
TEL : 010-3616-8698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장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경매/매/빌/오피스텔

지역	소재지	면적/건평	감평가	최저가	비고	
전남	순천	신성동	부영	109/33	1억9천	1억9천
	순천	문세재(이)로	112/34	1억9천	9천	9천
	남구	보신동	쌍촌(쌍)빌	211/64	4억5천	3억1천
	남구	보신동	쌍촌(쌍)빌	109/33	1억4천	9천
	북구	학동	금양(쌍)빌	156/48	2억2천	1억5천
	북구	용봉동	이(쌍)빌	188/57	3억3천	2억3천
	북구	우산동	현대	224/68	1억9천	1억3천
	북구	동림동	삼익	158/48	1억2천	8천
	북구	일곡동	쌍용	156/48	1억9천	1억3천
	북구	유촌동	바들(쌍)빌	106/33	1억2천	8천
전남	광안동	동부(쌍)빌	215/65	3억2천	2억2천	
	광안동	쌍촌(쌍)빌	112/34	1억5천	1억5천	
	광안동	쌍촌(쌍)빌	188/57	3억3천	2억4천	
	광안동	쌍촌(쌍)빌	109/33	1억4천	9천	
	광안동	쌍촌(쌍)빌	156/48	1억9천	1억3천	
	광안동	쌍촌(쌍)빌	106/33	1억2천	8천	
	광안동	쌍촌(쌍)빌	215/65	3억2천	2억2천	
	광안동	쌍촌(쌍)빌	112/34	1억5천	1억5천	
	광안동	쌍촌(쌍)빌	188/57	3억3천	2억4천	
	광안동	쌍촌(쌍)빌	109/33	1억4천	9천	
전남	광안동	쌍촌(쌍)빌	156/48	1억9천	1억3천	
	광안동	쌍촌(쌍)빌	106/33	1억2천	8천	
	광안동	쌍촌(쌍)빌	215/65	3억2천	2억2천	
	광안동	쌍촌(쌍)빌	112/34	1억5천	1억5천	
	광안동	쌍촌(쌍)빌	188/57	3억3천	2억4천	
	광안동	쌍촌(쌍)빌	109/33	1억4천	9천	
	광안동	쌍촌(쌍)빌	156/48	1억9천	1억3천	
	광안동	쌍촌(쌍)빌	106/33	1억2천	8천	
	광안동	쌍촌(쌍)빌	215/65	3억2천	2억2천	
	광안동	쌍촌(쌍)빌	112/34	1억5천	1억5천	